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8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청파 장학회에서 11명의 귀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오늘 오후 집회는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회로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주세요.

수요 집회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아 줄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처서 절기입니다. 무기력한 일상을 접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일꾼답게 사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소음에 지친 우리를 고요 속으로 부르시는 당신 앞에 섰습니다. 더위에 지친 육신을 어루만지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향해 불어오시는 하늘의 영을 사모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허무한 경쟁이 미화되고, 소수의 승자에게 열광하는 세상에서 무더진 우리의 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돈과 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미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선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여행으로 부르시는 주님, 폭풍 가운데도 잔잔한 주님의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김철수 유영남 한상의 정영선 김용진 박효선 김혜권 김준호 곽혜자  
배근수 김금순 서원금 임원민 임수연 정완수 김재광 김훈동 맹은선  
최윤희 안준용 권미숙 허호범 무명1

**월정현금:**

권혁순 박혜경 김성자 김종문 지명주 김정애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박경원 박옥순 안길상 이봉배 이유선 방극숙 조순덕 하정석 이명희  
박찬정 최동운 윤여민 임보람 이해동 문홍일 황의일

**감사현금:**

박창운 허정윤 정현창 고재중 고유비 방준방 민황경순 권혁순  
박혜경 이한림 김명희 김명순 허신열 강금연 박순현 김금하 김진영  
이지훈 오래된미래 무명2

**생일감사현금:** 이유선 윤정덕

**녹색꿈현금:** 윤미경 윤수진 나오미선교회 무명1  
(누계-2,020,000원)

	장혜숙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안정숙	박애순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심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 낮은 목소리

더 작은 목소리로  
 더 낮은 목소리로, 안 들려  
 더 작은 목소리로, 안 들려, 들리질 않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라일락 같은 소리로  
 모래 같은 소리로  
 풀잎으로 풀잎으로  
 모래로 모래로  
 바가지로 바가지로  
 손가락으로 말해줘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내 사랑, 더 낮은 소리로 말해줘  
 나의 귀는 좁고  
 나의 감정은 좁고  
 나의 꿈은 웅색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너의 목소린 너무 크고 크다  
 더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들려줘  
 저 폭포와 같은 소리로,  
 천둥으로,  
 그 소리로 (장석남)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강한 다수의 편에 서서 폭력을 방조하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대하는 능력을 땅에 묻어 두지 마십시오.  
 아멘. 형제 자매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부끄럽게 돌아봅니다. 이제는 폭력과 편견에 의해 내몰린 사람들의 손을 사랑으로 잡아주는 삶을 꿈꾸며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여름 행사 보고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기도 /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김재흥 목사	문홍일 집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문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집착

집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 이를테면 자동차, 매력적으로 광고하는 첨단 전자제품, 칭찬하는 말, 사람들의과의 교체들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물이나 사람이 일으키는 만족스러운 느낌에 집착하고 반복해서 느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마침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동일시해서, 이 사람이나 사물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겨난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부푼 집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 집착을 지니게 됨으로써, 집착의 한 부분이 아닌 것은 어김없이 배제하게 되고 무감각해진다.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떠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까지 그곳에다 두고 옴으로써 그 다음 장소에 집중하지 못한다. 인생의 교향곡은 흐르고 있는데, 계속 지나간 몇 소절의 선율에 집착하느라 여타의 음악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그 때문에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과 당신이 집착하는 것 사이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긴장과 근심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사랑과 사랑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넘치는 자유의 죽음이다. 사랑과 자유란 우리가 각각의 음표들이 만들어 내는 음계를 즐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음표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착을 어떻게 버리는가? 사람들은 단념을 통해서 집착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음악 몇 소절을 단념하고 의식에서 지워 버리는 것은 집착이 만들어 내는 것과 똑같은 유형의 폭력과 갈등과 무감각을 만들어 낸다. 다시 당신이 자신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비결은 아무 것도 단념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즐기며, 모든 것이 지나가고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집착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켜보라. 집착이 가져다주는 전율과 순간적인 즐거움에 집중하기는 쉽다. 그러나 근심과 고통

과 부자유를 생각해 보라. 동시에 집착을 버릴 때마다 당신의 것이 되는 즐거움과 평화와 자유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음악에 매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중심부까지 썩었고 집착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사회를 보라. 누군가가 권력과 돈과 재산, 명예와 성공에 집착한다면, 자기의 행복이 이런 것들에 달려 있기라도 한 듯 이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으로 간주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의 교향곡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해 완고하고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야망에 사로잡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그를 믿음직한 시민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가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른바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서 집착하지 않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의 온유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당신이 이 점을 오랫동안 충분히 생각한다면, 심한 역겨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은 모든 집착을 당신 안에 자리잡고 있는 뱀이라도 본 듯이 본능적으로 멀리 내동댕이칠 것이다. 이렇듯 욕심과 집착 위에, 야망과 탐욕 위에, 사랑이 없는 완고함과 무감각 위에 기반을 둔 부패한 문화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달아날 것이다.

한여름의 소나기 때문에 계획이 어그러지면 우리는 몹시 화가 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지배와 통제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자연은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계획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자연에는 불화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연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자연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자연은 인생의 끝은날에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며, 그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을 가르쳐줍니다.